

민주 “이번 주 전원토론회서 선거제 개편 공론 수렴 시작”

“현행 제도로 선거,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의 아나” 무임승차 ‘65→70세’ 일축…“노인빈곤율, OECD 4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번 주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주관의 국회의원 전원 토론회를 기점으로 민주당의 본격적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내 공론 수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문제와 관련 “노인 빈곤율이 OECD의 4배나 높고 노인 복지연금이 취약한 상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선거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서 준연동형 제도를 실행해봤지만 위성정당 출현과 비례 전체 의석수 부족 등 때문에 사실상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제도로 선거를 또 치른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의 아나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 비례성, 지

역주의 완화 등을 고려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다 나은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난방비 대책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층까지 대책을 세워 보라고 한 지 2주가 넘었는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월 난방비가 더 크게 올라 민생은 아우성인데 대책은커녕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117만 가구와 난방비 할인 160만 가구 중 98만 가구는 중복돼있어 실제 지원 가구는 179만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현수막만 보면 실제로 270만 가구 지원받고 있는 것처럼 조작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빨리 하고 민생 9

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39조원 규모의 추경을 빨리 하자고 수차례 제안하고 있지만 쇠 귀에 경읽기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와 연금이 매우 안정적이면 70세 연장이 타당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노인 상대빈곤율이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하고 노인 빈곤율이 4배나 높고 노인 복지연금이 취약한 상태라 70세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3 협의체에서 논의된 정부조직법 중 2개를 우선하자고 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문제 협의가 늦어진다면 국가보훈부와 동포청 관련 입법을 먼저 추진하자고 한 것을 정부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행안위에서 관련 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이 맞나 알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제안보센터를 만들고 실시간 경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오른쪽)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위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 대표실에 경제 위기 상황판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시범가동을 해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식으로

실시간 경제 위기 시스템에 대한 민주당의 진전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민주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은 뇌물…진실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아들의 50억 퇴직금은 곽상도 전 의원에 주는 대장동 일당의 뇌물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국민상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 나이 만32세, 90년생인 곽병채씨의 화천대유 7년 근무의 대가인 50억 퇴직금, 7년 근무한 대리의 50억 퇴직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의 이면에는 바주기 수사, 바주기 기소, 바주기 재판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곽씨는 지난 2021년 9월 아버지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아버지

“입사·노동·퇴직 모두 상식과 동떨어져”

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전형적인 ‘아빠 찬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곽씨가 스스로 밝힌대로 그 당시(2015년) 대장동 일당은 이미 사업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있어 사업성공이 가시권인 상태였다”며 “화천대유 입사는 검사·정와대 민정수석 출신 아버지를 둔 ‘신의 아들’ 곽씨에게 각종 특혜와 50억 퇴직금이 가능했던 회사 화천대유의 입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곽씨는 아버지의 알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이후에도 온갖 특혜를 누리며 회사를 다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씨는 화천대유 평직원 중 유일하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를 지급받아 골프연습장과 식당 등지에서 연간 1000만원씩, 총 51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화천대유는 곽씨의 사택 전세보증금 4억원을 대신 대주교, 2020년에는 심지어 곽씨에게 5억여원을 대출해준다”며 “대한민국 최고 직업인 검사도 업무조차 못 할 혜택”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씨의 골프연습장에 대해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취미생활을 하라는 취지’, ‘많은 혜택이 아닌 후생차원이고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제공’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며 “천인공노할 대담”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입사·노동·퇴직 모든 과정에서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불공정의 모범 곽씨의 직장생활은 전 검사·전 민정수석·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의 아들인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공정을 기치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기에 어떠한 반응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바주기 수사·바주기 기소·바주기 재판에도 혹시나 전 검사·전 민정수석·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의 영향이 미쳤는지, 또한 직장생활 중 추가적인 특혜를 누린 것은 없는지, 더욱 심한 ‘불공정’은 존재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날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신민호 도의원, 전남 인구정책 대전환 촉구

청년, 귀농어·귀촌인이 머물러 살기 좋은 정책 펼쳐야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최근 제368회 임시회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촉구했다.

1986년 284만 명에 달했던 전남 인구가 20년 만에 200만 명이 붕괴됐고, 지난해에는 181만 7천여 명까지 떨어졌다.

신 의원은 “전남이 인구절벽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인구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

이고 있다”며 “귀농어·귀촌인구가 수가 2020년 4만 1,474명에서 2021년 4만 6,064명으로 증가하고, 청년인구 감소률과 타 시·도 전출인구도 둔화되는 등 일부 인구정책에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 전입 정책 등 전남 인구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남의 1인 가구가 274,108세대(2021년 기준, 총 가구 대비 34.7%)로 전국 대비 4.3%p 높게 나타났고, 주거 점유 형태를 살펴봤을 때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청년이 머물러 살기 좋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청년 주거지원 정책 추진 시,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와 함께 청년들이 하고 싶은 취미, 자기개발활동, 문화예술 등 여가활동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행복주택 모형’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